

2019년 11월 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무역협상 서명시기 지연 우려로 하락 로이터, “미-중 1 단계 무역협상 시기 12 월로 지연”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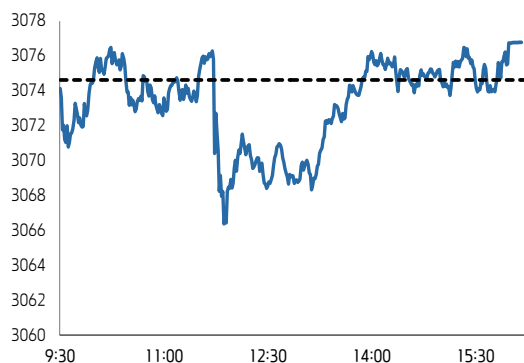
미 증시 하락 요인: 무역협상 낙관론 약화

미 증시는 중국과의 1 단계 합의 서명이 12 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더불어 최근 상승으로 지수가 과매수 상태로 돌입했다는 분석 또한 차익 욕구를 자극한 점도 부담. 특히 에너지, 소매, 반도체 업종이 부진. 다만,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윌리엄스, 에반스 총재등 연준위원들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데 힘입어 낙폭은 제한(다우 -0.00%, 나스닥 -0.29%, S&P500 +0.07%, 러셀 2000 -0.63%)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던 미-중 무역협상이 차질을 보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됨. 특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1 단계 합의 서명 시기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관세 철회 요구로 인해 12 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부담. 이는 미국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9 월 1 일 부과된 관세 철회와 12 월 15 일 추가 관세 인상 취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을 보여줌. 결국 미국이 관세 양보에 대해 강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1 단계 합의 서명이 이뤄지기 까지는 시기가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제안한 아이오와는 배제된 가운데 스웨덴과 스위스가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나옴.

이런 가운데 시장이 과매수 상태로 이동했다는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 최근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낙관론에 의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3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둔화되었다고 발표. 이는 3 개 분기 연속 둔화로 어닝 리세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최근 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업종이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소매 유통, 반도체 업종이 부진. 다만, 일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헬스케어 업종 등은 강세를 보이며 하락을 제한했고,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144.15	+0.07	홍콩恒生		27,688.64	+0.02
KOSDAQ		669.68	-0.37	영국		7,396.65	+0.12
DOW		27,492.56	-0.00	독일		13,179.89	+0.24
NASDAQ		8,410.63	-0.29	프랑스		5,866.74	+0.34
S&P 500		3,076.78	+0.07	스페인		9,398.40	-0.10
상하이종합		2,978.60	-0.43	그리스		859.81	-1.55
일본		23,303.82	+0.22	이탈리아		23,373.22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퀄컴 시간외 4% 상승

마이크로칩 테크(-4.40%)는 화웨이 출하 제한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락했다. 더불어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 가이드를 발표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협상 서명 시기 지연 우려가 높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 여파로 마이크론(-2.05%), 자일링스(-1.71%) 등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가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4% 하락했다. 메이시스(-4.43%), 콜스(-1.65%) 등 백화점 업종은 물론 엑손모빌(-2.19%) 등 에너지도 무역분쟁 우려로 하락했다.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CVS헬스(+5.36%), 휴마나(+3.46%) 등 헬스케어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제록스(+3.55%)가 씨티그룹을 통해 자금을 조달 HP(+6.36%)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아웃백으로 유명한 블루민 브랜드(+11.10%)은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등했다. 코티(+13.61%)는 아마존을 통해 자사 브랜드가 40% 성장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퀄컴(-0.97%)은 시간 외로 4%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05%	대형 가치주 ETF(IVE)	+0.03%
에너지섹터 ETF(OIH)	-2.87%	중형 가치주 ETF(IWS)	-0.21%
소매업체 ETF(XRT)	-0.42%	소형 가치주 ETF(IWN)	-0.58%
금융섹터 ETF(XLF)	+0.51%	대형 성장주 ETF(VUG)	-0.13%
기술섹터 ETF(XLK)	-0.05%	중형 성장주 ETF(IWP)	-0.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3%	소형 성장주 ETF(IWO)	-0.64%
인터넷업체 ETF(FDN)	-0.44%	배당주 ETF(DVY)	-0.34%
리츠업체 ETF(XLRE)	+0.3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9%
주택건설업체 ETF(XHB)	+0.5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2%
바이오섹터 ETF(IBB)	-1.10%	미국 국채 ETF(IEF)	+0.29%
헬스케어 ETF(XLV)	+0.34%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62%	물가연동채 ETF(TIP)	+0.32%
반도체 ETF(SMH)	-0.61%	Long/short ETF(BTAL)	+0.9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2.79	-2.29%	+3.29%	+6.24%
소재	373.53	-0.09%	+1.29%	+6.94%
산업재	685.74	+0.05%	+2.51%	+8.88%
경기소비재	959.19	+0.06%	+0.50%	+3.05%
필수소비재	626.25	+0.52%	-0.37%	+0.39%
헬스케어	1,089.91	+0.56%	-0.65%	+6.13%
금융	491.13	+0.41%	+2.61%	+9.41%
IT	1,490.83	-0.01%	+1.49%	+6.33%
커뮤니케이션	173.48	-0.20%	+1.24%	+4.84%
유틸리티	318.54	+0.26%	-1.79%	-2.26%
부동산	236.71	+0.41%	-3.02%	-2.5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 매물 소화과정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1%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2%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574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0.70pt 하락한 284.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1.7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유입되며 2,150pt 를 상회하기도 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관련 기대가 높아지고, '실적 바닥론'이 유입된 8 월 중순 이후 10% 넘게 상승을 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1 차 무역협상 서명 시기가 12 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은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이 약화되었다고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한편, 관련 소식으로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최근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불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등이 미국 연방 퇴직 기금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막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연준위원들이 온건한 통화정책을 언급하고, 미국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점을 감안 약세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웰컴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간 외로 4%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노동생산성 둔화

미 노동부는 3 분기 미국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에 대해 전분기 대비 0.3% 둔화되었다. 이는 지난분기 발표치(QoQ +2.5%)는 물론 예상치(QoQ +1.0%)를 하회했으며 20158 년 4 분기 이후 처음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단위 노동 비용은 예상(QoQ +2.2%)를 크게 상회한 전분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9 월 독일 제조업 수주가 전월 발표치(mom -0.4%)는 물론 예상(mom +0.1%)을 크게 상회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고 발표되었다. 이를 감안 독일의 4 분기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원유재고 급증과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약화 여파로 하락 했다. 장 초반 독일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EIA 가 지난주 원유재고에 대해 140 만 배럴 증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 793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전환 했다. 더불어 무역분쟁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인해 유로화와 파운드화에는 강세를, 엔화에는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무역분쟁 우려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했다.

국채금리는 3 분기 노동생산성 부진과 중국과의 1 차 무역협상 서명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하락 했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2 배) 보다 높은 2.49 배를 기록했고, 간접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62.3%)를 상회한 64.5%를 기록하는 등 국채 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무역분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지연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0%, 철근은 0.03%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6.35	-1.54	+2.34	Dollar Index	97.953	-0.03	+0.31
브렌트유	61.74	-1.94	+2.49	EUR/USD	1.1069	-0.05	-0.74
금	1,493.10	+0.63	-0.24	USD/JPY	108.97	-0.17	+0.11
은	17,598	+0.17	-1.51	GBP/USD	1.2857	-0.21	-0.35
알루미늄	1,810.00	-0.06	+2.84	USD/CHF	0.9924	-0.05	+0.30
전기동	5,907.00	-0.56	-0.02	AUD/USD	0.6883	-0.15	-0.29
아연	2,475.00	-0.92	-2.14	USD/CAD	1.3185	+0.21	+0.20
옥수수	378.75	-0.79	-3.07	USD/BRL	4.0745	+2.03	+2.08
밀	516.75	+0.29	+1.47	USD/CNH	7.0128	+0.15	-0.48
대두	927.50	-0.72	-0.32	USD/KRW	1156.90	-0.05	-0.96
커피	108.00	+2.08	+8.71	USD/KRW NDF1M	1161.71	+0.49	-0.2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14	-4.43	+4.26	스페인	0.289	-3.60	+1.00
한국	1.810	-1.00	+6.60	포르투갈	0.215	-3.00	+0.50
일본	-0.079	+4.30	+3.00	그리스	1.187	-0.80	+0.20
독일	-0.333	-2.40	+2.10	이탈리아	1.000	-2.70	+1.10